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18-19,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본문은 탕자의 비유이다. 본문은 특히 인간의 회개와 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대해 증거한다.

인간은 탕자와 같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재산을 받아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이 살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아버지는 강압적이지 않고 매우 인격적이며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버지이었다.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런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재산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허비하기는 쉽다. 대체로 부모의 유산을 받은 2세들은 그 재산이 어떻게 힘들여 모아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낭비하기 쉽다.

그 아들은 그것을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궁핍하였다. 젊은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일 것이다. 나이든 사람들은 많은 경험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를 예상하고 대비하지만, 젊은 사람은 그것이 부족한 편이다. 그 아들

은 그 궁핍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는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고 주인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 그는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에 떨어진 것이다. 인간이 천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탕자와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아버지와 같으시며 천국은 부자집과 같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아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즉 인간이 가진 재능과 건강, 물질과 시간 등 모든 좋은 것들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 가 산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산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인본주의적인 삶 혹은 세속주의적 삶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있고 세상의 즐거움만 있다.

특히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은 인간의 죄악되고 낭비적인 삶을 가리킨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헛된 일에 낭비하며 산다. 인간의 일생은 죄악되고 허무한 삶이다. 인간은 마침내 늙고 병약하여 죽는다.

탕자가 큰 흉년을 맞이한 것과 같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지혜와 재능이 점점 없어진다. 젊을 때의 충기가 점점 없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며 판단력도 흐려진다. 사람의 건강도 없어진다. 일반 사람들은 돈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서 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간다. 창자가 당한 큰 흉년은 어떤 사람에게든 젊을 때나 중년에 찾아오기도 한다.

인간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심한 궁핍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켰다. 사람은 궁핍할 때 제정신이 드는 것 같다. 그 아들은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천한 신세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집의 부유함을 깨닫게 되었다. 본문의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자신의 죄악됨과 비천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비천함과 죄악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부유하심과 영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악됨과 비천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부유하심과 영광을 깨닫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심히 죄악됨으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한다. 로마서 3:10-11,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자신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1:18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였던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인간은 심히 무지하고 완고하여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에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의 책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라고 말했다(애 5:2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다(롬 9:15-16), 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고 말하였다(롬 9:18).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으나, 어떤 사람은 회개치 않고 믿기를 거절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천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또 그의 아버지의 부유함을 깨달았을 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것은 인간의 회개를 보여준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비천함과 허무함을 깨달아야 하며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에 대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삶에서 떠나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다. 그 아들은 말하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것은 그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고백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은 다 즐거워했다.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 종은 대답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만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하였으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필요치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에 대한 것보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 더 컸다. 그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이었고 죽었다가 산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본문의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신다. 그는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다. 그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며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며 발에 신을 신겨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의 사랑이며 그의 기뻐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그의 재능과 건강,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탕자와 같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은 조만간 다 떨어질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분은 없는가? 아직도 자신이 심히 죄악 되며 비천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없는가?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비천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그를 보실 것이다. 그는 그를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그는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실 것이다. 그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알자.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한 사람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피하지 말고 그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은 외면하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